

베이비부머 세대의 결혼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고찰

성 미 애(방송대 부교수) · 변 주 수(서울대 박사과정)

본 연구는 100세 사회를 맞이하는 제 1세대가 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결혼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고찰함으로써 노년기 가족생활교육 및 부부교육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집단으로,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최초의 세대이며,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임과 동시에 자녀들로부터 자신의 노후부양을 기대 받지 못하는 첫 세대가 된다(Song, 2011, 32). 따라서 노년기에는 배우자가 중요한 심리적 자원이 되며, 돌봄의 주요 주체가 되기 때문에 노년기 생활만족도에 있어 배우자 유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연구결과들(Cho, 2007; Chung, Kim, & Kim, 2011; Han & Son, 2009; Sung, 1999 등)처럼, 다른 어느 세대보다 돌봄이나 심리적 지원 측면에서 배우자가 중요하며, 배우자와의 관계가 노년기 삶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세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세대의 경우 산업화 과정에서 일 중심적 삶을 살아왔으며, 전통적 가족가치에 입각해서 부부 중심보다는 자녀 중심의 가정생활을 영위하여왔다(Song, 2011). 그러므로 은퇴 이후 부부만 남게 되는 상황에서 부부간 친밀감 형성이나 적응 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의 부부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부부 간 친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한 논의가 현 시점에서는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통 농경사회 체제와 근대화 체제 모두를 경험한 이들 세대의 전통적 가족관점에 근거하여, 친밀감이나 결혼만족도 변수보다는 결혼불안정성이 이들의 부부관계의 특징을 잘 나타내준다는 인식에서 이들의 결혼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제2차 전국가족실태조사(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0) 자료 중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개인특성 변인(성, 성역할태도), 부부관계특성 변인(결혼지속년수, 1일 대화시간, 부부관계에서의 평등성, 폭력 경험 여부, 가사 분담, 가족돌봄 분담, 일-가족 균형)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결혼불안정성(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로짓분석으로 살펴보았다. 그 외 분석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각 변인별 관련 변수들의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살펴보았고, STATA 1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결혼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부부관계에서의 평등성 지각과 폭력 경험이었다. 즉 부부관계가 평등하다고 지각되는 경우에는 이들 결혼에 있어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할 승산이 0.619배 감소되었으며(OR=0.381***), 부부간 다툼이 있을 때 폭력을 경험한 경우에는 이들 결혼에 있어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할 승산이 4.348배 증가하였다(OR=5.348*).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은퇴하기 전부터 부부관계에서의 평등성을 강조하는 의식 및 실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교육에는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 즉 부부관계는 평등해야 하며,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 폭력이 아닌 다른 건설적인 대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대는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하는 제 1세대임을 강조하면서 노년기의 부부관계의 의미 및 상호 돌봄의 주체가 됨을 인식시키는 교육내용이 필요할 것이다.